



60여년 역사 전주종합경기장, 시민 추억 속으로

경기장 철거공사 안전지원 · 착공식

철거 절차 본격...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공사 마무리
공사 완료 후 전시복합산업 단지 조성에 행정력 집중

지난 60여년 동안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이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추억 속에 남게 됐다.

대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25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주요 내빈,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안전지원 ·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의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앞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 대변혁의 핵심이자 전주를 강한 경제도시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 조성 경과보고와 철거 안전공사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104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는 주경기장(3만5,594㎡)과 전주푸드(1057㎡), 수위실(100㎡) 등

총 연면적 3만6,75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공사로, 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 석면 철거공사에 착수해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착공식에 이어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부속건축물부터 우선 철거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본 경기장 시설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철거된 야구장에 이어 육상경기장 등 종합경기장 시설이 모두 철거되면, 이곳을 미래 전주의 100년을 책임질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난달 밀그림이 완성된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모두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는 건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안전지원 · 착공식'이 25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주요 내빈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거쳐 지난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중앙투자심사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MICE복합단지 제 영향평가 용역 및 건축설계용역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시는 효율적인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 · 관리

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 ·

도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숙박 및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롯데쇼핑)와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거버넌스 기반 메타버스 아이디어-사업화 실증단지(S·I-Town) 통합조성 등 MICE단지 내 문화 · 산업 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지난 10월 한 달간 펼쳐진 '전주페스타 2024'를 통해 시민들과 전주종합경기장에 담긴 시민들과 추억을 나누며 작별의 시간을 가졌으며, 종합경기장에 담긴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1963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돼 시민과 함께해온 종합경기장의 탄생부터 철거 과정을 기록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리적으로 도시의 심장부이자, 역사적으로 전주 시민의 삶과 함께해온 전주종합경기장이 MICE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전주 경제의 확실한 원동력이자, 명실상부한 전주의 심장부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뒤처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전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돼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수익, 도민에 환원

특수법인 새만금희망태양광, 6억6000만원 수익금 기탁

도내 중 · 고생 장학금, 육아 · 교통약자 차량 지원에 활용

새만금에서 태양광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가 도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 박덕현)은 25일 전북자치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 6억 6,000만 원을 도민들에게 써달라며 기탁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남동발전 등 11개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수익금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탁식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덕현 (주)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 이현웅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기탁금 6억6,000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보내 생

활형편이 어려운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3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출산 · 육아활동 지원 3억원과 교통약자 차량지원으로 6천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참석한 기관들의 전북도민을 향한 따뜻한 나눔과 동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도민을 위해 큰 금액을 기탁해 주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주)새만금희망태양광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주)새만금희

망태양광 박덕현 대표 또한 이번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은 "새만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한 입주기업의 씨에프백(CF100),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기탁식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과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태양광 첫 번째 발전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전북 도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덕현 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수익금 기탁식이 열렸다.

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기탁이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전북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만금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장학진흥원장은 기탁을 협력해 주신 기관의 대표들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장학금이 도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기부는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중요한 발걸음으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새만금희망태양광' 장학금은 2025년 상반기에 생활이 어려운 도내 중 ·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도민 대상의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진흥원은 '금융자산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기탁자 통장계좌월 자동이체)'를 활용한 장학기금 후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뜻있는 기업과 개인들의 장학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